

고용·상담·내일배움카드 원스톱 강동구, 전국 최초 직영센터 개소

20일 천호동에 노동권익센터 열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인력 배치 노동자 현장 애로사항 신속 대응 야간·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오는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 658)에 노동권익센터가 정식 개소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불안, 차별대우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장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중앙정부에만 노동문제를 맡길 수 없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직영 노동권익센터

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천호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총 규모는 450㎡이며 민원실, 일자리센터, 심리상담실, 교육장, 회의실, 행정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치료사 등 21명의 전문인력이 상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 법률, 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금융·주거·건강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강동구 주민이 송파구에 있는 고용노동부까지 가지 않고 센터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접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부지청과 잠정 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센터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로 상담이 쉽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 야간 심리상담실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한다. 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해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실무교육,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도 진행한다.

이날 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센터 임시 운영 기간 중 노무 상담 건수는 총 278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근로조건(근로계약, 근로시간·휴가·휴일, 퇴직금 등)이 141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불 46건(16.6%), 부당해고 25건(9%), 실업급여 24건(8.6%), 노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천호역세권에 전국 자치구 최초로 직영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동조합 12건(4.3%) 순이었다.

아울러 구는 8월 말 천호대로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264㎡ 규모)를 개소한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수리, 간병인 등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복지서비스, 쉼터를 제공한다.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는 남성·여성 휴게실,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강동구를 경유하는 모든 이

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 구청장은 “노동을 본질적 가치로 존중하고 성장 속 본배의 정의를 실현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차별화되고 선진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전철화 공사중인 임진강역 17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임진강역에서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 및 승강장 개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문산역까지 운행하던 경의선 전철은 올해 안에 임진강역까지 연장 운행할 전망이다. 이어 내년에 추가 공사로 도라산역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또 최대 애니메이션 축제 서울서 열린다

‘SICAF’ 내달 17일 코엑스에서 개최 28개국 다양성 작품 103편 상영

서울시는 7월 17~21일 코엑스 A4홀과 메가박스코엑스에서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3회를 맞은 SICAF는 세계 5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꼽힌다. 2019년 SICAF 주제는 ‘혁신적인 변화’다. 영화제 기간에는 다양성과 작품성을 갖춘 28개국 103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개막작은 한국 3D 애니메이션 화제작인 ‘레드슈즈’다. 빨간 구두를 신고 180도 변해버린 ‘레드슈즈’와 억울한 저주에 걸려 초록 난쟁이가 돼버린 ‘꽃보다 일곱 왕자’의 신나는 모험을 담은 작품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헬로카봇, 띠띠뽀 띠띠뽀, 꼬마버스 타요, 독도

수비대강치’, 명작을 통해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빨간머리 앤’,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페르세폴리스’ 등 총 28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외에 만화·애니메이션 전시, 웹툰 작가토크쇼, 코스프레 퍼포먼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영화제 티켓은 네이버,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웹툰 전문 시장인 ‘국제 콘텐츠마켓(SPP·Seoul Promotion Plan)’은 7월 15~17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개최된다.

SPP는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해 투자를 유도하는 ‘비즈매칭’ ▲아시아 대표 미디어사들이 모여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논의하는 ‘아시아뉴디렉션’ ▲콘텐츠 분야 최신 이슈를 공유하는 ‘콘퍼런스’ ▲국내 대표 미디어·제작사의 사업 설명회인 ‘이그나이트’로 구성됐다.

넷플릭스, 디즈니, 니켈로디언, 유쿠 등 대형 글로벌 바이어들이 참여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서울상상산업포럼’은 다음달 19~20일 DDP에서 열린다.

포럼 주제는 ‘발견의 시대, 新르네상스를 위한 포용’이다. ‘애니메이션 월드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 댄 사르토(Dan Sarto)와 포켓몬, 요괴워치 CG 회사 ‘OLM 디지털’ 상임이사 켄 안조(Ken Anjo)가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서울만화애니메이션위크는 전 세계 상상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라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여성 10명 중 8명 “몰카 불안해”

서울시 시민 1500명 대상 설문 숙박업소·공중화장실·수영장 順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3~29일 시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의 69%인 1031명이 몰카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목욕탕(9%) 등이었다.

시는 이날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 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 추진 등이다.

시는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요청한 건물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그 대상이다.

시는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과… “이달말 회복”

박남춘 시장 “초기 대응 미흡” 사과 정부 합동 현장조사결과 오늘 발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19일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정수장·배수장 정화작업 등 총체적인 관로 복구작업에 나서 오는 6월 하순에는 수질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이물질은 수도 관로 내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인천시는 수돗물 방류 조치 외에 정수장·배수장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수자원공사 등이 참여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정부 합동 조사반은 지난 7~14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완료한 데 이어 18일에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서울시 법규·구제 절차 등 수록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 책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책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 방법,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안내한다.

대부업자 상대 시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 하는 질문, 관련 법규도 수록됐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김현정 기자